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지부교섭 속보

1호

2024.04.19(금)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권현구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2024년 지부교섭 시작!



교섭원칙 합의

지부교섭이 첫 발을 내딛었다. 노사는 4월 18일 (목) 14시 한온시스템에서 상견례를 갖고 교섭원칙에 합의했다. 권현구 지부장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노사가 상생하는 교섭문화, 노사문화를 만들자”며 정부의 노조탄압에 기대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실수를 하지 않길 당부했다.

<교섭원칙>

1. 교섭장소 : 지회별 순번대로 순환
2. 교섭 개최 : 매주 목요일 14시 30분
3. 교섭 위원 : 각 사별 임원급을 포함한 2인 이상
4. 교섭 운영 원칙
 - 교섭성원 : 9인 이상 참석 (각 사별 1명 이상)
 - 간사 : 노(정성훈 사무국장), 사(JCC 배환석 공장장)
 - 사회 : 노(JCC 오세진 사무장), 사(코스모링크 민태홍 부장)
 - 서기 : 노(임성우 교선국장), 사(JCC 이준화 대리)

노조무력화 분쇄! 윤석열 퇴진! 투쟁선포

지부는 지부교섭 상견례에 앞서 같은 날 11시 30분 대전노동청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노조 전임자 축소, 회계공시 강요를 통해 노조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지부는 정권의 노조무력화를 끝장내고, 윤석열 퇴진 투쟁을 강력하게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대한 분노였다. 지금처럼 불통행보, 노조탄압 정책을 고수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금속노조의 강력한 투쟁에 무너질 것이다. 총선 참패를 넘어서 정권의 명운이 걸린 투쟁을 직면할 것이다. 금속노조의 투쟁은 시작됐다.

1차 교섭 (상견례) 속기록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하자

사 : 멀리 오느라 고생하셨다. 2024년 경제전망을 보면 회사나 직원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 맞는 것 같다. 노사 합심하고 상생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다.

노 : 반갑다.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16일(화)에 시작했다. 오늘은 지부교섭 시작한다. 올해는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요구안들이 많다.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전환, 기후위기,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지부장으로서 지금까지 대전충북지부 교섭은 신의칙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성실히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노사가 상생하는 교섭문화, 노사문화 만들면 좋겠다. 노측 교섭위원들도 노사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

교섭원칙 중에 노측 교섭위원 사전회의에서 검토한 내용 말씀드리겠다. 교섭위원은 각 사별 2인 이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착오가 있어서 1명 이상으로 하신 것 같다. 교섭 장소는 예전처럼 장소 순번을 정하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다. 교섭 후에 실무 논의 통해서 순번 정하면 어떨까 한다.

위임장은 오늘 준비 안된 사업장이 있다고 하

니 차기에 교환하자.

그리고 한온시스템이 화요일 중앙교섭에 불참했는데 이유가 있나?

사 : 지금까지 중앙교섭 결과물 100% 다 수용하고 있다. 화요일에는 사정이 있었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용자 내부에서도 약간 갈등이 있었다.

차기교섭 : 4/25(목) 14:30, 한국로버트보쉬